

## 장희종 목사님과의 목회 대담

대담자: 황대우(개혁주의학술원, 책임연구원)



**황목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목사님의 이력과 가족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목사:** 74년도 신대원 29기로 졸업하고 서울 삼일교회 개척으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삼일교회는 차영배 목사님이 개척을 시작하신 후에 저를 불러놓고 2개월 만에 총신 교수로 가시는 바람에 제가 뒤를 이어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81년 광주 경신여고 교목으로 옮겨 3학기를 보냈습니다. 은광교회 대학부, 전남대, 조선대 SFC 간사도 겸하고 있을 때 인테 광주 민중 항쟁을 몸으로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ACTS(아세아연합신학교)에서 석사공부를 하다가 알게 된 이종운 목사가 개척하자고 불러 할렐루야교회 부목사로 개척에 참여했습니다. 남아공 포체스트롬에 후원회가 조직되어 유학길에 오르려고 하는데 당시 남아공과 우리나라 사이에 국교가 단절되어 우리 정부에서 여권을 내주지 않아 유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때 신동아그룹의 최순영 회장(할렐루야교회 장로)이 자기를 2년만 도와달라고 해서 할렐루야교회의 협동목사이면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원의' 원목 생활을 2년 동안 했습니다. 약속한 2년의 사역이 끝난 후 신동아장학회가 1년에 일만 달러를 주는 장학금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손봉호, 이종운 교수가 화란으로 가서 화란 개혁파 신학을 배우는 것이 더 바람

직하다고 적극 권유해서 화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화란에는 손봉호 교수가 안식년 동안 함께 성경 공부하던 그리스도인들로 화란한인교회를 설립하고 담임목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초대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화란으로 가게 되었기 때문에 장학금이 필요 없어 반납하고 화란 한인교회 초대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983년 12월부터 89년 5월까지 약 5년 6개월 동안 화란한인교회를 섬겼습니다. 화란한인교회는 3년을 한 팀(term)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두 팀이 끝나갈 마지막 해에는 귀국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청빙하는 곳이 몇 곳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종운 목사를 통해서 할렐루야교회 담임목사로, 햇불회 이형자 권사를 통해 햇불재단의 원목으로 초청을 받았고, 또한 정근두목사가 작은 아름다운교회 운동을 위해 동역 하자고 권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정근두 목사의 생각에 마음이 동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두레교회에서 정근두 목사와 함께 동사무사의 꿈을 꾸며 귀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상적인 동사무사의 꿈은 몇몇 사정으로 6개월 만에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정근두 목사는 정릉에 탄포리교회를, 나는 상도동의 두레교회를 분립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두레교회 교회당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청년 사역을 하려고 할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뜻밖에도 저의 임지를 대구에 있는 지금의 명덕교회로 임지를 옮기셨습니다. 가족으로는 아내 박정숙과 딸 시은, 시경, 시진 세 자매가 있습니다.

**황목사:** '작은 아름다운 교회 운동'이라는 것이 참 좋아보입니다. 개혁주의적이기도 하고요. 그러한 목회시도를 오늘날에도 해볼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정신만이라고 가지고 있다면 지역교회들 사이에 있는 두꺼운 갈등구조의 벽을 허물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장목사:** 오늘날 대형교회를 추구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업을 할 수 있다

는 점을 들거든요. 하지만 비록 교회는 작을지라도 그 작은 교회들이 서로 마음을 모을 수만 있다면 협력하여 연합 사업을 못할 일도 없고, 그렇게 된다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 연합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황목사:** 논의되는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는 질문이지만 목사님께서는 언제 결혼하셨습니까?

**장목사:** 조봉암 목사와 서울에 진출했을 때 조봉암 목사는 말죽거리에서 잠실중앙교회를 개척했고 나는 화곡동에서 개척하여 지금의 삼일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75년에 서울에 올라왔고 77년 3월에 결혼 했습니다. 아내는 부산 대신교회 출신인데, 당시 서문교회에 다니고 있었죠. 아내의 동기들 가운데는 한진환 목사, 안용운 목사, 김순성 목사 등이 있습니다.

**황목사:** 따님이 셋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개도 조금 해주시겠습니까?

**장목사 :** 첫째 딸 시은이는 서울대 서양고전어를 전공하였고 지금 강의 하면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둘째 딸 시경이는 카이스트에서 컴퓨터 공부해서 삼성에 근무하다가 결혼해서 함께 독일에 가 있고, 셋째 시진이는 대구 경북대학교 졸업해서 서울에서 치과의사인 신랑을 만나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황목사:** 신학교에 입학하시게 된 배경과 신학교 시절의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목사:** 그 당시에는 제가 신학을 공부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한 동기는 제 친구 장성환 목사와 함께 서울에 올라

가 쪽방 빌려 시험을 보고 입학 발표를 기다리는 중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신학교에 가게 된 큰 계기였습니다. 그 때 광주광산교회 박은팔 목사님을 신학교 입학 추천서를 청탁했고 1년이나 쫓아다니면서 겨우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인 68년도에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고려신학교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신학교인줄로 알았습니다. 마침 부산에 경전선이 개통되어 그 기차를 타고 고려신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때 선배 가운데 한분은 신학교를 갈려면 서울에 있는 연세대나 한신대로 가라고 하면서 왜 하필이면 우물 안 개구리 같은 부산에 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황목사:** 제가 알기로는 68년 당시라면 대한민국에서 고려신학교가 교수진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인으로서 외국에서 정식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많지 않았는데, 그런 분이 한분도 아니고 세 분씩이나 고려신학교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아마도 당시에는 적어도 보수주의 신학교들 가운데는 가장 좋은 신학교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목사:** 특별히 한상동 목사님, 한부선 선교사님 같은 분들의 영적 감화력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때가 참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졸업할 무렵 허순길 박사님이 오셔서 역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졸업할 때는 논문을 쓰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한상동, 한부선, 허순길 박사님의 인격적 감화가 저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황목사:** 혹시 신학생 시절부터 목회를 시작한 것입니까?

**장목사:** 아닙니다. 저는 신학생 시절에는 주로 아르바이트와 SFC활동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황목사:** 네덜란드에서 한인교회를 맡아 목회를 하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때 이야기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장목사:** 당시 네덜란드에 사는 한인이 약 400명쯤 된다고 들었는데, 교인은 약 120여명이 모였습니다. 그때는 네덜란드에서 한인교회가 딱 하나 뿐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모든 개신교 교파를 초월하여, 심지어는 가톨릭 신자들까지도 전국 각처에서 모였습니다. 교파를 초월한 연합교회였습니다. 당시 고려파 교인은 강영안 집사가 유일했습니다. 교회 정관에는 목사가 3년마다 신임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 장로는 3년 마다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았고, 또한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목회해야 했던 것이 제게는 매우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목회가 깊어지면서 부딪히게 된 실제적인 어려움은 신앙고백의 문제였습니다. 구체적인 신앙고백 없이 그냥 한국보수교단의 입장을 지향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을 배우면서 성도들의 심령에 신앙고백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구성원들이 감리교, 성결교, 기장, 통합, 고신, 순복음, 침례교, 가톨릭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을 강조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기간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사역자를 위해서 신앙고백을 결정해 놓고 떠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어 사도신경과 니케아신경과 벨기에 신앙고백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공동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한 후, 저는 귀국했습니다. 후임으로는 김순성 목사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황목사:** 목사님께서서는 네덜란드에서 목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유학생

활동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유학생활동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요?

**장목사:** 서울의 아시아 연합신학교(ACTS)가 75년 9월에 개교하여 1기 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는데 그 때 한철하, 한태동, 김철현, 사무엘 마포삼열(Samuel Moffett) 손봉호, 조금 후에 이종운 등 고신 밖의 교수들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포삼열 교수는 한국교회사와 아시아 교회사에 깊은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83년 신동아그룹의 한 해에 일만 불씩 주는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를 공부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만 불로는 집세와 학비가 좀 모자라 주춤거리던 차에 손봉호, 이종운 교수의 권으로 화란한인교회에 담임목사의 신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유대학에서 언어훈련 과정에 있었는데, 캠퍼의 유해 무 목사로부터 급히 캠퍼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갔더니 고신 목사가 캠퍼에서 공부해야지 어떻게 자유대학에서 공부하느냐고 하면서 학교 측에서 데던스(D. Deddens) 교수를 지도 교수로 내정하여 지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국의 청교도들의 역사와 정신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데던스 교수는 개혁교회의 교회법을 공부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에는 이곳에까지 와서 교회법을 공부하느냐는 생각에 마음이 내키지 않아 공부에 대한 갈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목회하면서 공부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역사책 읽다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성경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는 것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내 역량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공부를 접었습니다. 하지만 화란한인교회로 모이는 암스텔페인(Amstelveen)의 임마누엘교회(Immanuel Kerk)에서 담임목사로 섬기던 더 흐로트(De Groot)를 만난 것이 제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서로의 사택을 오가며 화란개혁교회의 역사와 신학, 그리고 목회에 대하여 귀국할 때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황목사:** 그럼 귀국하신 후 한국에서의 목회 생활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귀국하신 직후에는 어디서 어떻게 목회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는데, 그리고 지금의 대구 명덕교회로 부임 하신지는 얼마나 되었으며 동기는 무엇인지...

**장목사:** 명덕교회 오기 전에는 서울 두레교회에서 개척했습니다. 화란에서 귀국하여 120여명 모이는 교회를 정근두목사와 이상적인 교회상을 실현하자고 뜻을 정하고 교우들로 하여금 각기 선택하도록 하여 두 곳으로 나누어 모였습니다. 정목사는 안창호 선생의 조카가 야간학교를 하던 정릉산자락의 학교 건물에 탄포리교회를 개척하고 저는 상도동에 두레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목사가 두 교회를 동시에 섬기는 이상을 실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설교 한편을 준비하여 두 주일을 사용하니 설교에 매이지 않는 독서를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한 실험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노회에서 시찰을 하면서 다른 노회 지역에 있는 교회를 정기적으로 교대로 설교하는 것을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금지시킨 것입니다. 지금도 그것을 실현시켜 좋은 모델을 만들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두레교회를 섬길 당시에 저의 머릿속에는 교회당에 대한 그림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에 지방에서 올라온 총명하고 신앙 있는 대학들이 주로 교인이다 보니 이들을 잘 훈련한다면 미래에는 교회와 민족을 위한 귀한 인재들을 배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라는 표제를 걸고 목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등록금, 자취생 음식 등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교회 방 한 칸을 학사로 내 주어 자취하도록 하는 그야말로 학생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동 많고 청년 많은 교회로 이름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성도가

찾아와 교회당 짓는데 요긴하게 사용하라고 자신의 땅문서를 헌납했습니다. 그 땅은 의정부 신곡동에 있는 밭 1250평이었습니다. 당시 그 땅은 생산농지여서 별 쓸모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저도 서랍 속에 넣어놓고 있어 버렸는데 김영삼 정부 때 신곡단지가 형성되면서 매입되어 당시 약 8억 정도의 현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지금의 서울두레교회당 건물을 법원경매에서 낙찰을 받았고, 개조하여 교회당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당 없이 사글세 집에서 개척하다가 건물을 장만하게 되어 좋은 환경 가운데 이제 본격적인 청년들을 위한 목회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으나, 대구 명덕교회로부터 뜻밖의 청빙으로 인해 청년 사역에 대한 저의 포부는 중단되었습니다. 결국 1989년 5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서울 두레교회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고 대구로 옮겼습니다.

**황목사:** 명덕교회에 부임하셨을 그 때와 지금을 비교해서 교회와 목사님 자신에게 가장 크게 변한 것은 무엇인지요?

**장목사:** 1975년부터 1998년까지 화란생활을 제외하고 서울에서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대구 생활은 처음에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모두가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 않는 지역 정서에 숨이 막히는 같았습니다. 청년들과 격의 없이 자유분방하게 지내던 저로서는 요나의 고기 배속 같았습니다. 부임 조건으로 제가 요구한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학생 청년 없는 목회를 상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한 학사를 만들자고 요구했던 것인데 그렇게 하겠다는 확답을 주어서 대구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첫 당회에서 학사 마련을 위해 교회 앞집을 구입하자고 했고 논쟁 끝에 그 집을 학사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온 학생 10명을 입사시켰습니다. 이런 학사 운영은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장년만 300여명 모이는 교회에 10여명에 불과했던 청년

대학부가 1-2년 사이에 70~80여명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청년대학부를 맡아서 대학을 찾아다니며 청년회를 구축하였습니다. 제가 청년들 사역에 집중하니 당회 장로님들로부터 '우리는 무엇이나 장목사는 청년만 생각 하나?'고 불멘소리도 들었습니다. 청년들이 100여명으로 늘어나 교회에 활력이 생기면서 전담사역자를 구해 맡겼습니다. 청년들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시던 한 장로님이 앞집을 한 채 더 자신이 구입하겠다고 해서 학사를 넓히게 되었고 그 결과 지금은 20여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 같으면 이 청년들이 그대로 교회에 남아 젊은 일꾼이 되었겠지만 이곳 대구에서는 젊은이들이 졸업하면 직장을 찾아 떠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청년 사역이 제가 이곳 명덕교회에서 목회한 가장 보람된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황목사:** 명덕교회를 목회하시면서 청년 사역처럼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이 많았겠지만 그 가운데 몇 가지만 더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장목사:** 처음 부임해 왔을 당시에는 저도 장로님들 모르고 장로님도 저를 몰랐기 때문에 제가 하룻밤 자면서 당회수련회하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부곡에 가서 서로의 요구를 주고받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제일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나는 60이 넘어서 석회석이 되었으니 강하게 하면 부러집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강하게 요구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또 제일 나이가 연하인 장로님이 "나는 내 신앙이 다 형성 되었고 내 생각과 신앙은 코팅이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속 깊이 동의할 것을 요구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청년들만 목회하던 나로서는 암담한 현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목회 철학을 터득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청년 다루듯이 강하게 하지 말자!' '느긋하게 세월 싸움을 하자!' 하는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10년쯤

지나니 은퇴 하실 분은 은퇴하고 코팅된 생각도 의식도 흐릿해졌습니다. 좀 더 세월이 흘러 20대 30대 젊은이들이 30대 40대 후반이 되어 제 설교에 귀를 기울여주시 용기를 내어 강해설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처럼 연속적으로 성경 한 장을, 때로는 한권을 집중적으로 설교하는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깊은 내용이 형성되는 것을 느낍니다.

**황목사:** 청년들의 변화와 성경강해설교에 대한 보람을 경험한 목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변화와 보람의 예를 하나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목사:** 처음 부임했을 때는 매월 각 성도회의 헌신예배 강사를 다 끊어 버리고 제가 모든 것을 홀로 해나갔습니다. 특별히 주일날에는 새벽기도부터 오전예배와 오후의 교리교육 등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러기를 10년쯤 하고나니 틀이 조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외부 강사도 한 번씩 초빙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강사 초빙은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었고, 그래서 연초에는 제직 수련회 타이틀로 은혜롭게 말씀 하신다는 목사님들 초청하였습니다. 한 번은 외국에서 공부하여 학위도 받으시고 한참 목회도 크게 하시는 목사님을 모셔서 세웠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큰 은혜를 받고 기뻐했는데 젊은 층들은 "이건 성경말씀이 아니다!" 라고 반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젊은 성도들이 지금은 교회의 중심역할을 하게 된 것이지요.

**황목사:** 목사님 자신에게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곳에 오셔서 목회 하시는 동안 '이곳에서 목회하시면서 이런 변화가 있었다' 하는 게 있습니까?

**장목사:** 누구든지 목회가 그러겠지만 저도 목회 초기에는 전체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들만 보았는데, 목회를 오래 하다보니 전체가 보이더라구요. 이것이 연륜이 주는 은혜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됩니다.

**황목사:** 목회하시면서 '너무 힘들었다. 위기였다' 라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언제였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목사:** 부임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 한 번은 당회원들 모두 산에 가서 하룻밤 지내면서 목사에게 요구할 것이 있으면 하시라고 말을 꺼냈는데, 장로님 15분 전원이 별떼같이 달려들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설교부터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지금까지 목사님들에게서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설교만 듣다가 저에게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런 것이어야 한다!'는 라는 설교를 들으니 부담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장로님이 15명이었는데 차례대로 태클을 거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회를 하면 격론이 벌어질 때가 다반사였습니다. 그 때는 제가 좀 서툴렀겠죠. 위로하면서 점진적으로 일을 해 갔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몇 주 동안 제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때로는 떠날 생각까지도 하곤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예외 없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아찔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순간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제가 수습을 하고 정신을 다시 차린 다음부터는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성도들의 형편을 고려하면서 완급 조절을 했습니다. 물론 밀어붙일 때는 밀어 붙였지만. 그러다가 차츰 한 분씩 마음을 풀고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부담을 주시던 한 장로님이 1년 반쯤 되던 어느 날 제 방에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제 내가 언제 다시 담임목사님을 새로 모시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목사님을 나의 목사님으로 생각하겠습니다."하시는 것입니다. 그 뒤로 변함없이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힘이 되어 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목회의 재미가 아닌가 합니다. 한 분씩 장로님들의 마음이 풀리자 교회 분위기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수장로 제도, 당회실의 육중한 소파, 권위적인 태도 등등. 이런 숨 막히는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회 실을 바꾸고, 당회원들부터 먼저 식사 후 설거지를 하기로 다짐했고, 그래서 저부터 앞치마 걸치고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권위적이었던 장로님들도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게 되었는데, 이 소문이 대구에 번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황목사:** 연속 강해 설교와 교리 설교를 부임하실 초창기에는 잘 하지 못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분위기가 개선되어 수용 될 만한 때에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장목사:** 오후에는 신앙고백과 교리 설교를 했는데, 불평이 많아 했다가 안했다가 했다가 안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이제는 감이 잡히고 정착이 되어 주일 오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및 소교리문답으로 설교 하는데 제가 하지 않고 부교역자들에게 맡겨도 한 절씩 연속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물론 예전과 달리 성도들도 재미있어 합니다. 체계가 잡히니까! 우리 교회는 주일 오후에는 신앙고백 강해 설교를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황목사:** 장로회는 조직 교회마다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 있는 치리회인 당회가 존재하는데, 이런 장로교의 특징인 당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목사님의 생각은 어떤신지요?

**장목사:** 저는 우리 전통적인 장로교회의 치리회를 성경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장로가 장로의 역할과 장로로써

갖추어야 할 신앙과 신학적인 소양의 결핍으로 오는 피해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교단의 개혁신앙을 견지하는 개혁주의 교회건설이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로교의 당회 제도는 제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당회의 구성원들인 장로의 자질이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장로들의 연중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장로연합수련회를 꼽을 수 있는데, 수련회 강사들을 보면 전혀 장로교회 이념과 맞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저 유명하고 재미있다고 소문만 나면 우리 고신의 신학과 정신을 고려하지 않고 강사로 모셔오는 것이 문제죠. 결국 전혀 우리의 신학과 신앙 정서에 맞지 않는 분들의 강의와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향을 받고 그런 내용들이 신앙의 표준이 되어 가니까요. 그러면서 신앙의 혼합주의가 되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매년 장로연합수련회를 통해 장로교 원리와 개혁신학 및 신앙의 원리에서 아주 거리가 먼 내용의 교육을 받으면서 점점 고신의 정체성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황목사:** 장로연합수련회 강사를 선정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강사 선정을 장로님들이 하시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이 강사 선정을 할 때 방향 설정이든지 강사 추천이든지 그런 것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장목사:** 장로들이 그런 기관을 두려고 하지 않죠. 예를 들면, 장경동 목사를 강사로 채택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해야겠죠. 그때 참 속상했습니다. 장로교에서 예배를 그런 분에게 맡겨서 되겠습니까? '장로교단의 교회를 지도해 가는 장로들이 장경동 목사를 초대해서 뭘 하지는 것이냐?'는 식으로 화가 난 적이 있어요. 전국장로회 임원들은 '얼마만큼 많이 모이도록 하느냐?'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예요. 그래서 그것이 강사를

모시는 기준이 되어버린 거죠. '주변에 어느 분이 은혜롭게 한다더라'는 것이 강사 선정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황목사:** 자기의 치적, 공치사 때문에 강사 선정도 좀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 한다는 말씀이시죠? 장로가 되면 장로회에서 뺏기도 달아주고 한다는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지금은 '장로 유세'의 하나로 보이는 측면도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장로회 가서 활동한 사람치고 교회에 유익한 장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장로회 가면 사람 버리더라. 멀쩡한 사람도 장로회 활동하고 하니까 이상하게 되더라,' 등의 말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장로들만의 모임인 장로회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목사:** 장로들만의 모임인 장로회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의 회" 즉 장로회는 교회의 치리회이지 친목집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장로들만 따로 모이는 장로회가 임의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임의 단체에 의해 교단이 정치적으로 좌우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임의 단체가 우리 교단의 치리회자체를 좌지우지 해버린다는 말이지요. 이게 정말 큰 문제죠. 한명동 목사가 장로들의 모임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목사 모임을 없애버렸습니다. 임의 단체라는 말이 회의록에도 나오는데 임의 단체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 만들 수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명동 목사님 계실 때는 목사회를 하지 않았습시다. 그런데 요즘 목사회를 만드는 추세입니다. '장로회를 대항하고 제압하기 위해서는 목사들도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저는 정치적 인 의도로 목사회를 조직하는 일은 불필요하지만 목사들 스스로 교육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런 모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들이 함께 모여

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 교육을 받고 목사의 소양을 키우는 일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이 정치적 세력이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황목사:** 사실 목사회는 종교개혁의 시대인 16세기부터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건설을 위해 필수적인 모임이었습니다. 당시 목사회에서는 교육과 행정 및 신학 문제들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제네바에도 목사회가 있었는데 이 모임에서 목사들은 예배 순서 말을 사람을 정하기도 했고, 교회 행정과 신학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목회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목사회는 제네바 치리회와는 구분된 독립적 모임이었습니다. 장로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목사도 장로인데, 이 점에서 역사적으로나 장로회 정치 체제적으로나 목사를 제외한 장로들만으로 구성된 장로회는 사실 반장로교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게 언제 왜 이렇게 우리 교단에 생겨서 뿌리를 내리게 됐는지 듣고 싶습니다.

**장목사:** 영국의 엘리자벳 여왕시대 에그문드 그린달이 대주교로 있을 때 목사들의 교육을 위해 장날에 장이 서는 지역에 목회자들이 모여 성경을 연구하도록 장소를 마련해주고 음식을 공급해주면서 목사들의 교육을 장려했습니다. 목사들의 바른 성경연구가 영국교회 개혁의 초석이 된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로들의 모임은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임원으로 나갈 것이냐?', '누구에게 표를 모아주어야 하느냐?'하는 작업들이 그 모임의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인데, 이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청년들을 위한 결혼 사업도 하고 신학교에 장학금도 줍니다.

**황목사:** 목사님 생각에는 우리 교단의 총회와 노회의 문제점은 없다고 보시는지요?

**장목사:** 총회적인 사업은 가능한 축소하고 개교회의 행정이나 재판 문제는 해당 노회나 당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형편에 총회와 노회가 수직관계, 상하관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회는 좀 더 큰 틀에서 어떤 교단과 교회의 신학적 방향이나 교리적 문제, 교회의 방향설정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노회가 처리해도 될 개교회의 행정적인 문제나 소송 문제를 총회가 다루는 것은 시간낭비, 재정낭비라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총회에서 다루어질 문제인가 하는 회의적인 생각과 더불어 그런 것이 너무도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총회 참석할 때마다 듭니다. 노회마다 감정싸움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총회에 올리고 올라온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회가 또 양파로 갈라져서 토론하게 되는데 정말 지겹습니다. 특히 재판을 위해서는 개교회가 노회에 호소하면 그 재판비용으로 100만원이 들고, 그 문제가 총회까지 오면 경비는 200~300 정도 드는데 그것이 작은 돈입니까?

**황목사:** 고소와 재판 문제는 아마도 총회가 최고의결기관이다 보니 끝까지 한 번 가보겠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으로는 사안을 분리해서 총회가 다룰 수 있고 다루어야 하는 사안은 넓은 틀에서 교단 전체의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통일성과 관련된 문제이고, 나머지 행정적이고 사법적인 문제들은 노회가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노회와 노회 사이에 발생하는 행정적이고 사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는...



**장목사:** 그것은 총회가 해줘야지요.

**황목사:** 우리 고신교회가 개혁신학을 표방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도 고신교회가 어떤 점에서 개혁교회다운지, 어떤 점에서 개혁교회답지 못한지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요?

**장목사:** 정말로 우리 교단이 웨스트민스터를 우리의 신앙고백으로 삼은 것은 자랑스럽습니다.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이라는 교단 정신은 정말 소중한 가치입니다. SFC강령처럼 개혁주의 교회건설이라는 구호도 너무 귀한 것입니다. 이런 정신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삼도록 모든 임직 식에서 서약을 하는 것은 좋으나 그런 고백적인 삶을 교회가 계속해서 가르치고 삶을 지도하고 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우리의 신앙고백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것이 문제죠.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들여다 보면 정말 안타깝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개혁주의 교회건설”,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 등과 같은 구호는 이제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 된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칼빈을 비롯한 대륙의 개혁자들이나 영국의 청교도들이 지향했던 ‘성숙함’을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 또한 이 시대 우리들에게 정통과 순결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있는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이런 소중한 유산을 우리 교단 1세대들에게 직접 물려받았던 자들로서 무능함과 책임감을 통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목사:**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개혁신학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실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중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교단의 신학교와 신학교육 및 신학생들에 대한 목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

다.

**장목사:** 신학교는 우리 교단과 교회가 나아가야 할 종합적인 청사진을 5년 혹은 10년 마다 정기적으로 제시하면서 교회의 방향과 시대적 강조점과 책임을 감당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지금처럼 개교회 중심으로 가도록 방목하게 되면 교회의 동질성에 심각한 이질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신학교의 교수들은 교단과 교회의 선생으로서 개혁신학의 진수를 끊임없이 캐내어 제공해야 하고 학생들은 그 새롭게 캐내어진 진수들을 보물처럼 여기며 습득하는 자세로 학업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와 신학교 교수들은 모든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교단의 모든 목회자들이 우러러 보는 권위와 존경의 대상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학교의 교수들 사이에 신학적인 통일성이 형성되어야 하고 이 통일성에 근거하여 모든 교수들이 신학적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수들 사이에서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그것이야말로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요? 이런 문제들이 선결되지 않는 한 지금 교수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포럼과 세미나를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목사:** 지금까지 신학교와 신학대학은 어느 정도 긴장관계였는데, 최근 재정 압박으로 그 긴장이 고조되어 가는 듯합니다. 이런 긴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혹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목사:** 총회적으로 깊이 고민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같은 교단의 목사인데 신학부 교수든 신대원 교수든 서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정도는 좋은 곳에 자리를 마련

하여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신대원 교수와 신학부 교수 모두 한 자리에 모여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마음들이 열리지 않을까요? 총회 신학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서로 마음들이 닫혀 있는 것 같아요.

**황목사:** 후배들에게 당부하거나 부탁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장목사:** 대륙의 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은 우리에게 영적 성숙함이 무엇인지, 정통과 순결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맑은 정신에서 나오는 예리함과 따뜻한 가슴에서 나오는 열정이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상과 꿈을 소유한 자들이었고 실천하는 현실주의자들이었으며 목표를 지향하는 방법론자들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는 질고의 사람들이었지만, 그 고난은 그들을 단련시키고 원숙하게 했으며, 훌륭한 성장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편안함과 호화스러움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원흉입니다. 성숙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하려는 열정에서 어떠한 난관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한 기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주님을 따르는 순례자요, 군사로 생각했기 때문에 투쟁 없이는 한발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삶 전부를 전쟁으로 간주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그리스도는 대장이시고 그들의 무기는 기도와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의 깃발은 십자가이고 그들의 모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정복한다!” 저는 우리 교단에 속한 목사들은 모두 이런 선배들의 정신과 삶을 뒤따르는 목회자들이 되기

를 바랍니다.

**황목사:** 마지막으로 저희 개혁주의학술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부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목사:** 개혁주의학술원이 처음 설립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학문하는 자들에게도 필요하지만 개혁교회를 지향하는 목회자들에게는 오아시스와 같이 소중한 합니다. 지금처럼 소중한 글들을 계속적으로 제공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목회 현장에서 소홀히 하기 쉬운 주제들을 일깨워주는 학술 활동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한 번 학술원 세미나에서 다루었던 성찬에 관한 주제는 목회자에게 큰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독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목회자들에게 최근 국내외 출간되는 신학도서 서평은 독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황목사:**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인터뷰를 위해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